

투데이

광주 수돗물 8일만에 정상 공급

용연정수장 공급 아파트 수질 기준치 적합

오염 수돗물 손해배상 요구 등 파장 불가피

광주시 용연정수장의 수돗물 오염 사고 파장이 사고 발생 8일 만에 해소됐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일 “용연정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아파트 422곳에 대한 1, 2차 수질오염 조사결과 모두 먹는 물 기준치에 적합해 수돗물을 정상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1차 수질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됐던 동구(55개소), 서구(26개소), 남구(58개소), 북구(129개소) 등 268개소에 대해 19일까지 재조사를 한 결과,

문제가 됐던 알루미늄(AI) 수준이 모두 기준치(0.2mg/L) 이하로 나타났다. 시는 이에 따라 주민에게 공지된 2급(주의) 상황을 모두 해제했다. 시 상수도본부는 AI 기준치가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수조에 저장돼 있던 수돗물을 모두 빼낸 후 새 물을 공급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빛어울수 9만2000병을 공급하고, 연인원 1130명과 장비 128대를 동원해 철야 배수작업 등을 하며 수돗물 정상화에 나섰다. 시 상수도본부는 대형 아파트

는 배수와 청소, 물 저장에 2~3일이 걸려 정상화까지 다소 시일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돗물 오염 사고’로 인한 민원발생은 현재까지 2000여 건에 이르며, 이중 1600~1700여 건이 수돗물 유해 여부를 묻는 문의전화였다. 또, 100여 건 정도는 수도요금 경감 문의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일부 민원인은 수돗물 오염으로 인한 각종 손해배상 여부를 묻고 있어 향후 파장도 예상된다.

이병렬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돗물에 포함된 알루미늄이 고농도가 아닌데다 단기간에 종료됨에 따라 사실상 자체에 해를 끼친다는 상관성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손해배상에 따른 매뉴얼을 만들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또 “이번 수

질사고를 교훈 삼아 직원 안전사고 매뉴얼 교육 등 재발방지와 시민 신뢰회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 12일 오후 1시께 동구 용연정수장에서 약 품부입 벨브가 잘못 열리면서 강산성 응집제가 과다투입되는 바람에 수도 이온농도(pH)가 떨어지는 물 기준치를 초과한 이른바 ‘산성 수돗물’이 공급되면서 비롯됐다. 이후 수소이온농도(pH)는 정상화했으나 응집제 주성분인 알루미늄이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다시 ‘주의’ 빌령이 내려지는 등 시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용연정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주민은 광주 동구를 비롯한 서구, 남구, 북구 등 72만여명이며 이 가운데 아파트 단지 수용가는 47만여 명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일 한국스카우트 전남연맹 소속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영산강 승총보 인근에서 고무보트를 이용해 뱃길탐사를 하고 있다.

/나주=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영산강 뱃길탐사 나선 학생들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25일 개장

무사안녕 기원 고사 등 행사 다채

남해안 최고의 하계 휴양지로 주목받는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오는 25일 개장한다.

‘모래·우는 소리가 멀리 10리까지 들린다’해서 이를 붙여진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백사장 길이가 3800m, 너비 15m다. 개장 기간은 25일부터 9월 16일까지 115일

간이다.

개장식에서는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고사, 바자기요금 균절 결의대회, 해상 물놀이 인명구조 시범, 제트스키·바나나보트 탑승 체험 등의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서부취재부=정은조기자 ejchung@

‘아리랑 3호’ 발사·교신 성공

세계 4번째 ‘서브미터급 위성’ 보유

우리나라의 세 번째 다목적실용 위성인 ‘아리랑 3호’가 18일 새벽 1시39분 일본 규슈 남단의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 연구원은 “아리랑 3호가 태양전지판을 전개, 본격적인 운영 태세에 들어가고 국내 지상국과도 교신했다”며 발사 성공을 공식 발표했다.

아리랑3호는 지상에서 685km 떨어진 궤도에서 98분 주기로 하루에 지구를 14바퀴 반 돌며 지상을 촬영 한다. 한반도 상공은 새벽 1시30분과 오후 1시30분 전후로 하루 2번, 초속 7.4km로 지나간다.

또 소형위성발사체 나로호의 위성 궤도 진입 성공을 가능할 나로과학위성과 우주·지구관측 임무를 수행할 과학기술위성 3호도 이르면 연말께 발사된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미국·

유럽·이스라엘에 이어 상용으로는 세계 4번째(군용 포함 6번째)로 1m 이하 물체를 식별하는 ‘서브미터급 위성’을 가진 나라가 됐다.

정부는 올해 아리랑 3호를 포함해 총 4기의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야간이나 비가 올 때도 활용할 수 있는 전천후 레이더 장비를 갖춘 아리랑 5호가 발사된다.

3호와 5호가 협력하면 현재 하루 0.7회인 한반도 관측횟수가 하루 3.5회로 늘어난다.

또 소형위성발사체 나로호의 위성 궤도 진입 성공을 가능할 나로과학위성과 우주·지구관측 임무를 수행할 과학기술위성 3호도 이르면 연말께 발사된다.

이어 빛고을 시민 대동가요 한마당에는 남진과 주현미, 조향조, 이현섭 등 인기가수들이 출연해 시민들에게 흥겨움을 선사한다. 이밖에 자치구별

/연합뉴스

오늘 광주 시민의 날 ‘광주인권현장’ 선포

시민공원서 대동한마당… 고은 시인에 명예시민증

광주시는 제47회 시민의 날 맞아 21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민공원에서 ‘빛고을 시민 대동한마당’을 개최한다. 광주시는 이날 세계속의 인권·평화의 메카로서 광주의 미래 비전을 담은 ‘광주인권현장’도 선포한다.

이번 시민의 날 행사는 시민과 각 기관 단체·관계자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의 문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식전행사인 중요 무형문화재 제33호 고씨울풀이를 시작으로 대동농악놀이, 자치구별 입장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제1부 시민의 날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시민현장 낭독, 고은 시인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 시민대상 시상식

식, 강운태 시장 기념사, 윤봉근 시의장 축사, 시민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된다.

제2부 광주인권현장 및 인권지표 선포식에는 인권현장 개발 경과보고와 인권현장 낭독, 시민들의 축하 영상메시지, 민중기수 안치환의 축가, 입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이 이어진다.

특히 광주인권현장 낭독은 강운태 시장과 다문화가정·환경단체·농아·인협회·노동자·청소년·공무원 등 각 계각층 시민대표 19명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어 빛고을 시민 대동가요 한마당에는 남진과 주현미, 조향조, 이현섭 등 인기가수들이 출연해 시민들에게 흥겨움을 선사한다. 이밖에 자치구별

시민 장기자랑과 인권탑 쌓기, 시민 O×퀴즈 등 6종목의 명랑운동회 등이 열리며, 다양한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시민의 날은 광주인권현장이 선포되는 의미 있는 날”이라며 “인권도시, 문화도시로서 광주의 정체성을 확립해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적인 인권도시 모델로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인민의 날’은 애초 광주 직할시 승격 기념일인 11월 1일로 지정·운영돼 왔으나, 이날은 제정 의미가 약하고 날씨가 추워 시민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 민군이 옛 도청에 입성한 날인 5월 21일로 변경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모든 시민, 차별받지 않고 공동체 주인으로 살아갈 권리”

‘인권현장·지표’ 무얼 담았나

21일, 제47회 시민의 날에 선포될 ‘광주인권현장’과 ‘인권지표’에는 광주공동체의 인권증진을 위한 강력한 실천의지가 담겨있다.

광주인권현장은 그동안 수많은 공청회와 토론, UN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시민적 합의로 제정됐으며, 전문·분문(5장 18조), 현장의 이행으로 구성됐다.

전문에는 도시 내의 모든 사람

들이 경제적 지위 및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폭넓은 영역에서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5장 18조로 구성된 본문은 시민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평화로운 환경과 안전한 도시, 문화를 창조하고 연예하는 도시 등의 구체적 실현 방법 등이

담겨 있다.

또한, 광주가 갖고 있는 민주·인권·평화의 정신과 가치를 모든 시민들의 삶 속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광주 인권지표는 광주인권현장이 시민생활 속에 뿌리내리고 실질적으로 인권증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권의 측정방법과 실천도구로, 5대 영역 18대 실천과제와 10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전남영암

하누리병원 경매물건

■ 사건번호 : 2010타경 19601(물건번호 1)

■ 입찰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01호 법정

■ 법원최초 법사가 : 9,518,275,000원

■ 부동산위치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42-7번지 (전남방직 입구대로변으로 접근성이 용이)

■ 물건종별 : 의료시설

■ 토지면적 : 9,517m²

■ 건물면적 : 7,305.36m²(지하 1층, 지상 3층)

입찰진행내용

구 분	입찰기 일	최저경매가 격	결 과
1 차	2012. 04. 30	9,518,275,000원	유찰
2 차	2012. 06. 11	6,662,793,000원	
3 차	2012. 07. 23	5,330,234,000원	

■ 2010년 신축건물 상태 매우 양호



문의 :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강훈열 국장 H.P : 010-2498-0420

공금 횡령 피의자 수배 [현상금 3,000만원]



※ 사건개요
피의자 김국태(사진, 53세)는 2012년 1월 17일, 한국로타리 장학문화재단의 거래은행에서 공금 35억원을 인출하여 도주함.

위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신 분께는 소정의 포상금 (삼천만원)을 지급하며 모든 비밀과 신분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 신고처 112 *

부천원미경찰서 ☎(032)680-7126

부천원미경찰서장

CH 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광주분원 : 062)236-3516

서울본원/대전분원/대구분원/부산분원/울산분원/광주분원/제주분원